

(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Joy Credit Co., Ltd

본평가
평가일: 2017.5.26

평가개요	신용등급	평가대상	유효기간
	B+	기업어음	2018.06.30

Analyst	신윤섭 책임연구원	02)6966-2459	yoonsub.shin@scri.co.kr
	박민식 실장	02)6966-2461	mspark@scri.co.kr

Latest Rating	구분	평가일	등급
	-	-	-

재무요약

(단위: 억원)

(개별기준)	2013.12	2014.12	2015.12	2016.12	2016.3	2017.3
총자산	2,008	2,299	2,732	4,270	3,153	4,866
대출채권(총액)	2,125	2,219	2,733	4,334	3,104	4,768
차입부채	1,442	1,443	1,742	3,129	2,057	3,635
자기자본	486	740	835	1,060	1,006	1,118
영업수익	919	820	878	1,116	243	384
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	590	505	492	558	171	251
당기순이익	332	254	94	21	171	62
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률(%)	32.1	23.5	19.6	15.9	23.3	22.0
총자산순이익률(ROA)(%)	18.1	11.8	3.7	0.6	23.3	5.4
1개월이상(1M+) 연체율(%)	10.6	5.7	4.8	4.1	5.4	3.7
대손충당금/1개월이상 연체채권	112.2	145.0	144.8	151.1	76.8	154.2
조정레버리지(배)	2.9	2.4	2.7	3.3	2.8	3.5
자기자본비율(%)	24.2	32.2	30.5	24.8	31.9	23.0
회계기준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주1: 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률=(영업이익+대손상각비)/총자산평잔X100.

주2: 조정레버리지배수(배)=(총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대손충당금)/(자기자본+대손충당금),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X100

주3: 2016.3월 및 2017.3월 재무지표는 감사받지 않은 회사 제시자료임.

평가의견

서울신용평가는 (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의 단기(기업어음) 신용등급을 B+ 로 평가하며, 주요 평가요인은 다음과 같다.

- 대부 중개채널을 통한 사업기반
- 대손비용, 차입구조 등에 따른 높은 손익변동성
-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
- 양호한 유동성 대응능력 보유

■ 신용등급 논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이하 '동사')은 2016.6월 기준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들의 대부잔액을 기준으로 2.7%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중상위권의 대부업체로, 중개채널 의존도가 높은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독자적인 고객기반 확대와 대부업 이자율상한 인하여 따른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대출자산이 2013년말 2,125억원에서 2017.3월말 4,768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016년에는 신규 대출에 따른 대손상각비와 특수관계인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실로 수익성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 자산 규모 증가에 따라 대손부담이 높은 가운데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운용수익률 축소 등으로 수익성의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년간 축적된 DB와 자체적인 심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를 관리, 연체채권을 상회하는 충당금 적립 등을 감안하면 현시점에서 자산건전성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6년 큰 폭의 자산증가, 700만원 이상의 대출과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대출 비중 증가, 환경 변화에 민감한 저신용계층 중심의 신용대출 등을 감안하면 자산건전성 유지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적극적인 성장전략으로 자본적정성 지표는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6.11월 특수관계인차입금의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적정성 약화를 일정 부분 완화한 점과 향후 추가적인 출자전환 가능성 등은 자본적정성 관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7.3월말 단기성차입금(2,311억원)은 총차입금의 63.8%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중 47.2%가 특수관계인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신용 계층 중심으로 구성된 대부업의 대출포트폴리오 특성상 원리금 회수 지연에 따른 유동성 축소 가능성이 있지만 원금회수율, 보유 현금, 별도의 약정은 없으나 특수관계인 차입금이 원금상환 없이 만기연장 되어온 점 등을 감안하면 유동성 위험 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동사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B+ 로 결정하였다.

■ 모니터링 요소

서울신용평가(주)는 동사의 시장지위 및 경쟁역량의 구조적 개선을 통한 수익의 안정화, 리스크 관리수준의 변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향후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신용등급 상향을 검토할 수 있다.

- 리스크 관리 강화와 자금조달구조 개선으로 손익변동성을 완화하면서
- 독자적인 영업기반 확대로 사업경쟁력이 강화되는 경우

반면,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할 수 있다.

- 자산건전성 저하로 손익변동성이 확대되거나
- 지속적인 성장전략으로 자본적정성이 악화되는 경우

■ 주요 평가요소별 검토

2007년 설립된 대부업체

동사는 2007.2월 설립된 대부업체로 저신용자에 대한 소액 신용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2016년말 기준 최대주주는 쿠니모토 마사히로(대표이사)로 동사의 지분 50.7%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인 (주)어드밴스가 49.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2016년 주주 외화차입금에 대한 출자전환(200억원)으로 자본이 확충되어 2017.3월말 자기자본은 1,118억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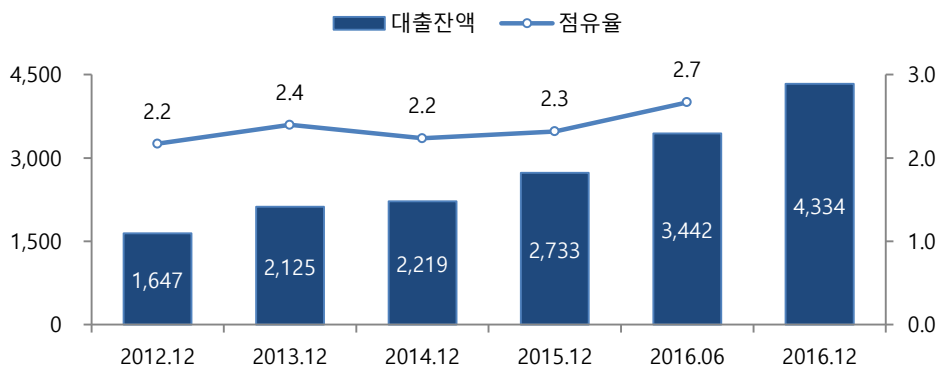
중개채널 중심의 사업구조

동사는 신규대출의 대부분을 중개채널을 통해 확보하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이후 외형 확대를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동사는 2016.6월 기준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들의 대부잔액(12.9조원)을 기준으로 2.7%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중상위권 대부업체임. TV 광고 등을 통해 자체 영업기반을 확보하여온 경쟁사들과 달리 신규대출 기준 약 97%, 대출잔액 기준 약 57%가 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중개채널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 추가대출, 재대출, 전화접수 등 영업채널 다변화 노력으로 2012년 이후 대출취급액 기준 자체 영업비중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2016년 이자율상한 인하에 대응한 자산 확대 과정에서 중개업체 의존도가 다시 상승하는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으로 당분간 현재의 사업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국내 대부업체는 2010년 들어 총 4번에 걸쳐 이자율상한이 인하(현행 27.9%)되었으며, 이자율상한의 추가 인하 가능성, 광고 규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부정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되고 있음.

[대출채권 규모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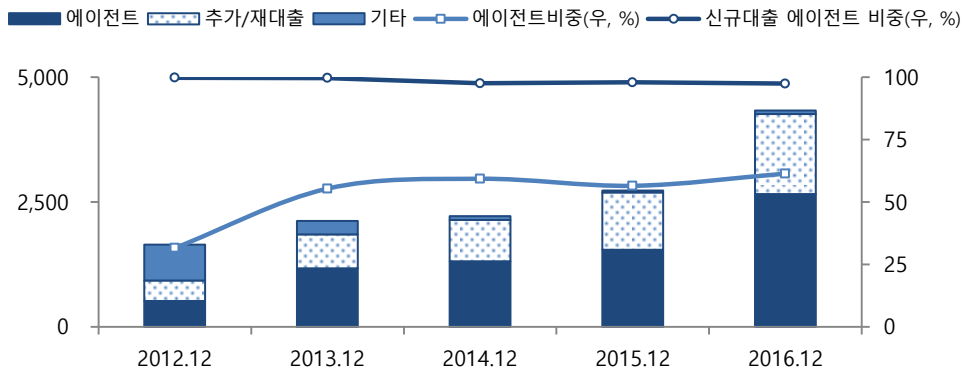
(단위: 억원, %)



자료: 금융감독원, 동사제시

[영업채널별 구성 및 비중 추이]

(단위: 억원)



자료: 동사제시, 당사 재가공

수익변동성은 높은 수준

동사는 환경변화에 민감한 수익구조로 손익변동성이 높은 수준임.

- 2016년에는 큰 폭의 대출자산 증가에 따른 대손비용 발생과 외화환산손실로 ROA가 0.6%까지 축소되는 등 수익성은 낮은 수준임. 비우호적인 영업환경 등으로 운용수익률이 하락한 가운데 큰 폭의 자산 증가에 따른 대손부담은 수익성 개선에 부정적 요소임.
- 동사의 조정총자산순이익률과 조정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률은 단순 이익률 대비 안정적인 모습으로, 동사는 적극적인 성장전략에 따른 대손비용과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익으로 인해 수익 변동성이 높은 수준임.
- 다만, 동사는 중개수수료 외 별도의 수수료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계사차입금을 중심으로 자금조달비용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 요소임.

[수익구조 추이]

(단위: %)

구분	2013.12	2014.12	2015.12	2016.12	2016.3	2017.3
운용수익률	32.8	32.5	32.5	29.6	31.6	27.6
조달비용률	7.5	7.7	7.5	7.7	1.8	6.6
대손비용률	9.1	9.5	12.2	12.9	-1.6	11.6
모집비용률	6.6	3.8	4.1	4.7	5.3	4.0
판관비율	4.8	4.4	3.8	3.2	0.8	0.7
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률	32.1	23.5	19.6	15.9	23.3	22.0
조정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률	16.0	18.3	22.1	18.6	23.6	18.3
총자산순이익률(ROA)	18.1	11.8	3.7	0.6	23.3	5.4
조정총자산순이익률(조정ROA)	2.0	6.6	6.3	3.2	5.9	0.4

자료: 동사 제시자료, 당사 재구성

주: 조정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률과 조정총자산순이익률은 외화환산손익을 제거하여 계산한 비율임

포트폴리오 구성 변화로 리스크 부담 다소 높은 수준

동사는 규제환경 변화 대응 과정에서 대출자산 포트폴리오의 변동으로 거액여신이 증가하고 만기 일시상환의 채권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자산건전성 유지 부담이 다소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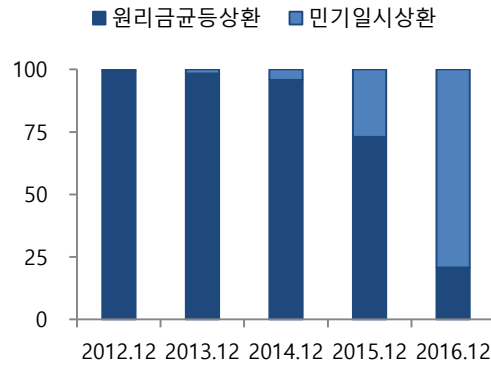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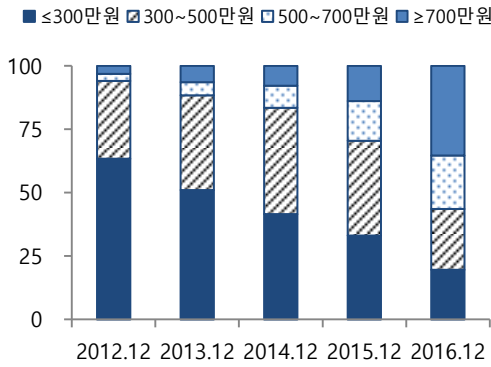
- 대출 포트폴리오의 경우 1,500만원을 한도로 소액 분산되어있으나 건당 대출금액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대출취급액 기준, 2015년말 384만원 → 2017.3월 570만원)이며, 2016년에는 상대적으로 거액여신인 700만원 이상의 대출이 증가하였음.
- 평균 대출만기는 대부분 3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환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자유상환도 가능하나 연체이력이 없을 경우 만기연장 또한 가능하며, 자산 대부분은 환경 변화에 민감한 6등급 이하 신용계층(2017.3월말 기준 85.5%) 중심의 신용대출(2017.3월말 대출잔액 대비 98.1%)로 구성되어 있어 자산건전성 유지 부담이 높음.

[대출금액별 구성내역]

(단위: %)

[상환방식별 구성내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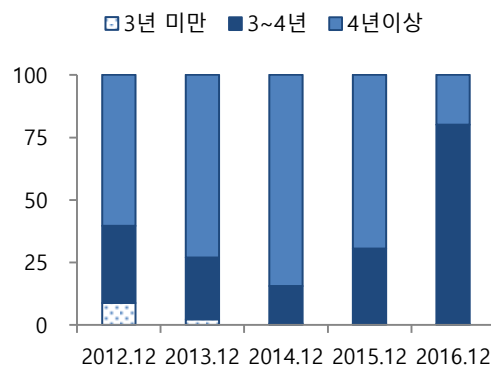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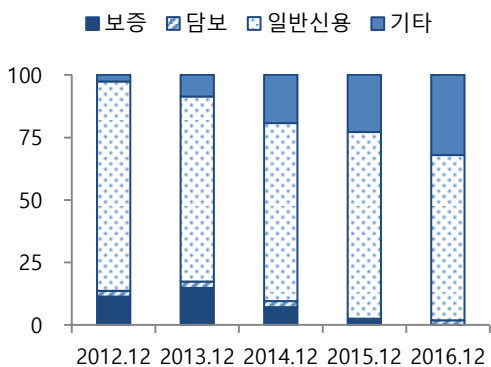


[대출상품별 구성내역]

(단위: %)

[대출기간별 구성내역]

(단위: %)



자료: 동사제시

자산건전성은 양호하나 저하가능성 내재

동사는 자산건전성을 양호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으나 큰 폭의 대출자산 증가와 포트폴리오 구성 변화는 자산건전성 유지에 부담 요인임.

- 동사의 2017.3월 기준 1일이상 및 1개월이상 연체율은 각각 5.4% 및 3.7%로 양호한 수준이며, 2017.3월 기준 1일이상 및 1개월이상 연체채권 대비 총당금적립률은 각각 106.1% 및 154.2% 수준으로 연체채권에 대한 위험 완충력은 양호한 수준임.
- 그러나 2013년 이후 평균 400억원(대출잔액 대비 13% 수준) 내외의 대출채권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대출자산의 증가에 따른 연체율 하락 효과, 대출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변화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자산건전성 위험은 지표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판단됨.

[자산건전성 추이]

(단위: %)

구분	2013.12	2014.12	2015.12	2016.12	2017.3
연체율(1일이상연체채권)	13.8	8.4	7.2	6.0	5.4
총당금적립률	86.4	98.7	97.0	102.1	106.1
연체율(1개월이상연체채권)	10.6	5.7	4.8	4.1	3.7
총당금적립률	112.2	145.0	144.8	151.1	154.2

자료: 동사 제시자료, 당사 재구성

주: 총당금적립률은 각 연체채권 대비 총 총당금적립금액임.

특수관계인 차입금은 자본적정성 유지에 긍정적 요소

동사는 최근의 영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확충으로 자본적정성을 보통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음.

- 2017.3월 동사의 차입부채는 총 3,635억원으로 저축은행 등 국내금융기관 담보차입금 2,523억원, 특수관계인 해외차입금 1,088억원 사모사채 23.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적극적인 성장 과정에서 차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자본적정성 지표가 저하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6.11월 200억원의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적정성 약화를 일정 부분 완화하였음.
- 특수관계인 차입금의 경우 만기연장에 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원금상환 없이 지속적으로 만기가 연장되어온 점과 향후 추가적인 출자전환 가능성 등은 자본적정성 관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기자본비율 및 레버리지배수 추이]

구분	2013.12	2014.12	2015.12	2016.12	2017.3
차입부채(억원)	1,442	1,443	1,742	3,129	3,635
조정레버리지배수(배)	2.9	2.4	2.7	3.3	3.5
자기자본비율(%)	24.2	32.2	30.5	24.8	23.0

자료: 공시자료, 동사 제시자료, 당사 재구성

유동성 위험 관리 수준 양호

동사의 자금유통성을 감안하면 유동성 위험 관리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동사의 2017.3월 기준 단기성 차입금 2,311억원은 총차입금 대비 63.8%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중 47.2%가 특수관계인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금조달 구조는 안정적인.
- 단기성 차입금의 만기는 대부분 6개월 이후 시점에 집중되어 있으나, 동사의 월평균 원리금 회수액(260억원, 대출잔액 기준 최근 12개월 월평균회수율 7.7%)과 보유 현금성자산 등으로 충당 가능한 수준임.
- 그러나 동사의 대출포트폴리오 특성상 원리금 회수 지연에 따른 유동성 축소 가능성이 있음. 특수관계인 차입금의 경우 만기연장에 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금 상환 없이 지속적으로 만기가 연장되어온 점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의 안정성은 인정됨. 이와 더불어 동 차입금에 대해서는 담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아 보유 대출채권을 통한 추가 차입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유동성 관리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단기성차입금 만기일정]

(단위: 억원)

구분	2017.06	2017.09	2017.12	2018.03
국내차입금	45	68	497	614
차입금	45	68	489	614
사채	-	-	7	-
외화차입금(특수관계인)	240	275	245	329
차입금 합계	284	342	741	943

자료: 공시자료, 동사 제시자료, 당사 재구성

주: 차입금은 해당 시점까지 만기도래하는 차입금의 합계액임.

본 평가는 서울신용평가(주)가 공시한 여신전문금융업 방법론을 준용하였습니다. 공시된 신용평가방법론은 서울신용평가(주) 홈페이지 www.scri.co.kr의 Research/평가방법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건 신용평가등급 산정에 이용한 중요자료는 감사보고서, 경영공시자료, 차입금 현황 등입니다.

[단기신용등급의 정의]	
신용등급	정 의
A1	적기 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이어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음.
A2	적기 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3	적기 상환능력은 양호하나, 장래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이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	적기 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그 안정성에 다소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C	적기 상환능력이 의문시되어 투기적 요소가 강함.
D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주1: 상기 등급 중 A2부터 B까지는 당해 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우월 정도에 따라 +, - 기호를 부기할 수 있음.

주2: 상기 등급 중 A1등급에서 A3등급까지는 적기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으로, B, C 등급은 환경변화에 따라 적기 상환능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됨.

- 본 신용평가의 계약체결일 및 평가개시일은 2017년 5월 2일이고, 평가완료일은 2017년 5월 26일입니다.
- 최근 2년간 평가요청인과 체결한 다른 신용평가 건수 및 수수료총액은 각각 0건, 0백만원입니다. 당사는 평가완료일 현재 평가요청인의 다른 신용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평가요청인은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최근 2년간 평가요청인과 체결한 비평가용역계약 체결 건수 및 수수료 총액은 0건, 0백만원이며, 당사는 평가완료일 현재 평가요청인의 다른 비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 기업집단의 직전연도 비평가용역 수수료 비중은 당사의 직전연도 전체 비평가용역 수수료 총액의 0.0%에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현재시점에서의 서울신용평가(주)의 의견입니다. 신용등급은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시장가치 변동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등의 여타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조화금융상품의 신용등급은 법령, 조세제도의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서술이 아니며, 당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위험에 대하여 예측한 의견으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을 의미하지 않으며, 특정 증권의 투자의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등급이나 평가의견 등은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정보이용자들은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평가서 및 의견서 등 보고서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 및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의 특성 및 자료원의 제한성, 분석자, 분석도구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결정시에 활용되었거나 평가보고서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충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의 오류, 사기 및 허위, 미제공 등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당해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을 포함한 보고서에 반영되었거나 포함되어 있는 정보 및 기재내용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합성을 당사가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평가의견을 포함한 신용평가서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며,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을 포함한 신용평가서상의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서울신용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사전서면동의 없이는 무단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 재판매 또는 유포될 수 없습니다.

(개별)재무지표(단위: 억원)	2013.12	2014.12	2015.12	2016.12	2016.3	2017.3
회계기준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현금및예치금	94	222	141	127	129	300
유가증권	4	4	5	12	5	7
대출채권	1,872	2,035	2,542	4,069	2,974	4,498
대출채권총액	2,125	2,219	2,733	4,334	3,104	4,768
(대손충당금)	253	185	191	265	129	271
유형자산	3	2	3	4	3	5
기타자산	35	36	41	58	42	57
자산총계	2,008	2,299	2,732	4,270	3,153	4,866
차입부채	1,442	1,443	1,742	3,129	2,057	3,635
차입금	1,442	1,443	1,742	3,122	2,057	3,611
회사채	0	0	0	7	0	24
기타부채	80	116	155	74	91	89
부채총계	1,522	1,559	1,898	3,210	2,148	3,748
자본금	100	100	100	300	100	300
이익잉여금	386	640	734	755	905	816
자본총계	486	740	835	1,060	1,006	1,118
영업수익	919	820	878	1,116	243	384
이자수익	621	708	806	1,048	231	314
대출금이자	618	706	805	1,047	231	314
대출채권평가및처분이익	1	0	71	67	12	28
기타영업수익	297	112	2	2	1	42
영업비용	493	494	758	1,082	72	293
이자비용	108	111	119	187	9	56
대출채권평가및처분손익	172	206	374	524	0	160
대손상각비	164	180	372	524	0	160
모집비용	124	82	103	167	39	46
수수료비용	123	81	101	162	37	45
광고선전비	0	1	2	5	1	1
판관비	88	95	96	110	22	31
영업이익	426	325	120	34	171	91
[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	590	505	492	558	171	251
영업외수익	0	1	0	0	0	0
영업외비용	0	0	0	0	0	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26	326	120	34	171	91
당기순이익	332	254	94	21	171	62
비율분석(%)	2013.12	2014.12	2015.12	2016.12	2016.3	2017.3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ROA)	18.1	11.8	3.7	0.6	23.3	5.4
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률	32.1	23.5	19.6	15.9	23.3	22.0
자산건전성						
1개월 이상 연체율	10.6	5.7	4.8	4.1	5.4	3.7
총당금적립률	11.9	8.3	7.0	6.1	4.2	5.7
자본적정성						
조정레버리지배수(배)	2.9	2.4	2.7	3.3	2.8	3.5
단순자기자본비율	24.2	32.2	30.5	24.8	31.9	23.0
유동성						
단기성차입금비중	97.4	84.0	71.1	58.2	61.7	63.8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19.9	14.5	18.9	56.3	17.0	10.5
대출채권증가율(총액)	29.1	4.4	23.1	58.6	13.6	10.0

주1: 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률(%)=(영업이익+대손상각비)/총자산평잔*100

주2: 총당금적립률(%)=(대손충당금/대출채권(총액))*100

주3: 조정레버리지배수(배)=(총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대손충당금)/(자기자본+대손충당금)

주4: 단기성차입금비중(%)=단기성차입금/차입부채*100

주5: 2016.3월 및 2017.3월 재무지표는 감사 받지 않은 회사 제시자료임.